石亭 李定稷의 記文 연구

김하윤*

|| 차례 ||

- I. 서론
- II. 石亭 記文의 개관
- III. 石亭 記文의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舊韓末 문장가인 石亭 李定稷(1841-1910)의 記文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석정은 매천 황현·해학 이기와 더불어 근대 ‘湖南三傑’로 지칭될 정도로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며, 詩·書·畫 三絶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학혁명으로 인해 54세까지 창작했던 詩文이 모두 소실되었지만, 이에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학문에 전념하여 모두 20여 문체와 15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특히 산문 중에서 22편에 달하는 기문은 高名한 能文者에게 청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석정의 文才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석정 記文 22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은 청탁의 성격이 강한 여느 기문과는 달리 자발적인 창작이 많았고, 다양한 諸 經典을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발성이 강한 기문은 석정이 宦路에 나가지 않았기에 公的인 기문보다 교유를 통한 자발적인 기문 창작이 활발하였고, 載道文學의 특징인 다양한 경전들을 차용하여 자신의 의론을 서술해 나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석정은 기문을 통해 儒者로서 지녀야 할 학문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문학이기 때문에,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나날이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끊임

* 배재대학교 기초교양교육부 조교수

없이 성찰하는 자기 수양[自修]의 태도로 人欲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인육은 학문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므로, 이를 잘 억누르고 天理를 통해서 仁義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자가 지녀야 할 자세라고 역설하였다.

주제어 : 석정 이정직, 기문, 자발적, 경전 차용, 자수, 천리, 형기, 인의.

I. 서론

19세기 말은 大韓帝國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격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高宗이 國號를 大韓帝國이라 고치고 皇帝로 自稱했지만, 당시 열강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한제국의 출발을 견제하였다. 더불어 1904년에 강제로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은 내정간섭과 국권침탈의 빌미가 되었고, 이 해에 발발한 러일 전쟁의 승리로 기세를 올린 일본은 1905년에 일방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외교권과 통치권이 박탈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본제국의 침략을 규탄하는 국권수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石亭 李定稷(1841-1910)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舊韓末 시기를 살았던 문학가이자 실학자였다. 석정은 전북 김제를 대표하는 문학가였고, 같은 지역에 海鶴 李沂(1848-1909), 구례에 사는 梅泉 黃玹(1855-1910)과 함께 근대 ‘湖南 三傑’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¹⁾ 석정은 어린 시절부터

1) ‘호남 삼걸’로 칭해지는 부분은 연구자에 따라서 이론이 있기도 하다. 당대 호남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艮齋 田愚(1841-1922)와 裕齋 宋基堯(1882-1956)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호남 삼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석정이 간재와의 교분이 전혀 없었고, 유재가 석정의 제자이긴 하지만 매천·해학과 그리 활발한 교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후대에 석정·해학·매천을 ‘호남 삼걸’로 지칭하는 것은 이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學德을 칭송하고 尊崇의 의미를 담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명하였기에 부모들은 자신들이 못다 이룬 한을 이룰 수 있을 정도라고 하시며 기뻐하셨고,²⁾ 석정도 이에 부응하여 젊은 시절부터 詩文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1894년 동학혁명으로 인해 그동안의 원고가 모두 소실되었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5년간 927제 1279수의 詩와 20여 문체의 산문 277편을 남겼다.³⁾ 현존하는 문집은 그동안 『燕石山房未定稿』로 집안에 내려오던 것을 1923년 그의 문하생들이 『石亭集』(7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영인본 『石亭先生文集』(한국문집편찬위원회)이 5권까지만 영인되어 출판되었고, 2001년에 김계문화원이 후원하여 『石亭李定稷遺稿』가 간행되었다.⁴⁾

석정은 1868년(고종 5년), 28세의 나이에 어영대장 李鳳九(1841-?)를 따라 청나라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학문의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 燕京에 머물면서 유상·탁경림 등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⁵⁾ 百家書와 서양의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문학가로서의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또 梁啓超의 『飲氷室文集』을 접하게 되면서⁶⁾ 칸트와 베이컨의 서양 철학을 우리

2) 『石亭李定稷遺藁』, 『傳家錄』, “不肖生四歲授以千字文, 一讀記數十字, 先府君喜曰, 此子其遂未遂之志乎.”

3) 구사회는 석정의 산문을 모두 273편이라고 하였다.(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시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한국언어문학』54집, 한국언어문화회, 2005, p.44.) 그러나 필자가 『石亭李定稷遺藁』에 수록된 산문을 계량화하여 합한 수는 277편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4) 『石亭李定稷遺藁』는 『燕石山房文稿』총9권, 『燕石山房文稿 別集』2권, 『燕石山房詩稿』총 5권, 『燒餘錄』과 『傳家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石亭李定稷遺藁』와 『石亭集』의 자료를 주텍스트로 하여 도움을 받았고, 필자의 의견과 다른 부분은 수정·보완하였다. 이하 문집의 명칭은 『文稿』, 『詩稿』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5) 김제의 인물-석정 이정직 선생, 김제 시민의 신문, 2000년 4월 19일자.

6) 심경호는 석정이 梁啓超(1873-1929)의 『飲氷室文集』에 근거하여 칸트와 베이컨의 서양철학을 소개하였다고 하였다.(『석정 이정직과 시경』, 『국제어문』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p.38) 양계초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신문사 주필로 있을 때 구사상을 배척하고 서구의 신사상을 소개하였던 인물이다. 그런데 석정이 중국을 방문한 해는 1868

나라에 소개하여 일찍이 철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⁷⁾ 그는 여러 서적을 널리 섭렵하여 陰陽·占卜·曆算·樂律·醫藥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⁸⁾ 詩·書·畫 三絶에도 多技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면모들이 처음에는 學界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다. 1894년 동학혁명으로 인해 집이 불타서 54세까지의 모든 시문이 燒失되었으므로, 54세 이후 작품만으로 그의 학문적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석정은 동학혁명 이후 약 15년간을 절망하지 않고 더욱 의욕적으로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는 굶주린 자가 밥을 구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詩文 창작에만 전념하였다.⁹⁾ “매년 360편씩의 작품을 짓는다면 죽을 때까지 4천편의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¹⁰⁾라는 열정으로 학문과 창작에 전념하여 1500편이 넘는 시문을 남겼다. 이와 같은 석정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작품만으로도 그의 문학적 위치를 입증하는 데에는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서는 석정의 문학 전반을 재정립한 저서¹¹⁾부터 文學과 書畫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²⁾

년이고, 양계초는 187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 아마도 석정은 중국에서 양계초의 학문을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석정 말년에 해당하는 1900년대 초에 국내에 유입된 서적을 통해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遺藁』 별집에는 『新舊折衷末篇』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그 밑에 『倍根學說』이라는 배이권의 학설 한 편만 실려 있다. 칸트의 학설인 『康氏學說大略』은 문집 전체를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

- 7)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종홍전집』V, 형설출판사, 1980, pp.283-285.
 8) 李建芳, 「李石亭遺集序」, 『蘭谷存稿』, “博涉羣籍, 至於陰陽占候曆算樂律醫藥之類, 皆深究其故.”
 9) 『文稿』1권, 『燒餘錄序』, “余於詩文, 盡乎性畫乎工, 委荼膚淺, 大無當於古今, 而好之之篤, 篤於飢者之食, 渴者之飲.”
 10) 『詩稿』3권, 「人日得年字」自註, “余年五十九, 若活七十年, 每年得三百六十篇, 畢生可得四千篇, 呵.”
 11) 구사회,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업적을 모두 인정하면서 석정의 20여 문체의 산문 중에서 記文에 주목하고자 한다. 석정의 문학이 다방면에서 주목을 받아 왔고, 산문에 대한 연구도 고문을 중심으로 다수의 업적이 축적되었지만, 記文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문이 지니고 있는 장르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면 석정 기문을 통해서도 그의 문학적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석정의 문학과 사상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12) 문학 : 김태선, 『석정 이정직 시문학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고문론과 역대문평』, 『어문연구』11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시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한국언어문학』54집, 한국어문학회, 2005;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논서시와 문예론적 특질』, 『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 구사회, 『석정 이정직 시론의 형성과정과 문예론적 검토』, 『한국문학연구』29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5;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구례 기행과 <作家指南>』, 『한국어문학연구』44집, 한국어문학회, 2005; 기태완, 『매천 황현과 석정 이정직의 문학논쟁』, 『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 박은정, 『이정직 문론의 한국 정맥론 계승·변모 양상 연구』, 『온지논총』13집, 온지학회, 2005; 이월영, 『석정 이정직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고시가연구』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황갑연, 『석정 이정직의 『논왕양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신문화연구』2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박세진, 『교산의 <記>작품연구』, 『한문고전연구』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박명희, 『석정 이정직 제화시의 두 층위』, 『동방한문학』35집, 동방한문학회, 2008;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논시시 연구-〈戲爲二十四絕句〉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박명희, 『석정 이정직의 ‘평답’논의와 시작 실천』, 『호남문화연구』42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8; 최영성,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예술-존고 정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33집, 전북사학회, 2008; 박은정, 『석정 이정직 문론 재고-法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심경호, 『석정 이정직과 시경』, 『국제어문』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서화 : 이은혁, 『석정 이정직과 19세기 전복서단』, 『성산문화』11집, 김제문화원, 1999; 박광근, 『석정 이정직의 서화세계』,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1;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서화예술론 연구』, 『선무학술논집』15집, 국제선무학회, 2005; 이선욱, 『석정 이정직의 서화세계와 전복 화단』, 『자료조사로 본 전라문화』, 선명출판사, 2006; 구사회, 『석정 이정직의 서예비평 연구-원교 이광사의 『원교진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II. 石亭 記文의 개관

雜記類 산문에 속하는 記文은 장르적 성격이나 의미 규정이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徐師曾은 『文體明辨』에서 기문은 사건과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놓은 글이라 하였고,¹³⁾ 孫梅는 賦·論·序·碑와 견주어서 기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체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¹⁴⁾ 기문은 문학에 대한 작가의 자부심과 학문에 대한 정신이 뚜렷이 나타나는 글이기 때문에, 보통 文才가 뛰어난 能文者에게 집중적으로 청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청탁자보다 사회적·학문적 위상이 높은 작가에게 기문을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서술대상에 대한 讚美나 教述·勸戒의 목적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석정도 기문은 반드시 문장에 숨겨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실제보다 넘쳐나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¹⁵⁾

먼저 석정의 기문을 서술대상과 청탁의 유무, 수신대상, 논의방식, 경전 인용의 현황 등으로 나누어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권	작품명	서술 대상	자발/청탁	수신 대상	논의 방식	경전인용
3	靑鶴山記	산	자발	미정	서술	
	蘇亭記	정자	자발	김명규	대화	『孟子』 『論語』

13) 徐師曾, 『文體明辨』, 記條, “記者, 所以備不忘也.”, 中文出版社, 1991, p.145.

14) 孫梅, 『四六叢話』 21권, 「記」, “竊原記之爲體, 似賦而不侈, 如論而不斷, 擬序則不事揄揚, 比碑則初無誦美.”, 世界書局, 1971, p.371.

15) 『文藁』 7권, 「止石記」, “凡人之記其室者, 必屬於工文之人以侈之, 故其辭常溢於其實焉.”

4	玉壺齋記	학교	청탁	왕소천	대화	『詩經』
	鶴南齋記	집	청탁	김화진	서술	『相鶴經』
	好書室 後記	서실	자발	미정	서술	
	萬卷堂記	서고	자발	미정	서술	
	申南沙 書室記	서실	자발	신남사	서술	
5	遊道成庵記	암자	자발	미정	서술	
	夏宜軒記	편역	자발	미정	서술	
6	逸堂記	집	청탁	이성심	대화	
7	石田書室記	서실	자발	황원	서술	
	黃梅泉 書室記	서실	자발	황현	대화	
	長枕軒記 并書	편역	자발	이성심	서술	『書經』 『論語』 『孟子』
	智石記	이름	자발	이지석	서술	『論語』
	止石記	이름	자발	이지석	서술	『周易』
	種竹記	대나무	자발	미정	서술	
8	白坡書室記	서실	자발	백과	서술	『論語』 『禮記』 『周易』
	箕亭記	호	자발	최국명	대화	
	小川齋記	서재	자발	왕소천	서술	
	友竹堂記	집	청탁	신우죽	서술	『論語』 『詩經』 『大學』
	德玉齋記	서재	청탁	이연희	서술	
博約齋記	서재	청탁	최창렬	서술	『論語』 『中庸』	

<표1>에서는 석정의 기문을 모두 22편만 제시했는데, 석정의 문집 전체를 살펴보면 모두 35편의 記文이 보인다.¹⁶⁾ 이는 동시대 매천이나 해학

16) 석정의 記는 論, 說에 이어서 가장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총 277편의 산문 중에서

의 기문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에 해당한다. 매천 황현은 『梅泉集』 6권에 7편, 속집 1권에 4편을 합하여 총 11편을 남겼고, 해학 이기는 『李海鶴遺書』 8권에 총 7편의 기문을 남겼다. 이들과 비교해 봐도 석정은 당대 다른 문장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기문을 창작했고, 이는 석정이 지닌 산문에 대한 문예적 인식과 그의 문학적 위상을 확인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석정 문집에 나타난 22편의 기문은 창작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인 편제를 보이지도 않았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화체보다는 작가의 의론이 차분하게 서술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기문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樓亭記가 많았고, 타인의 청탁에 의한 기문보다는 석정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 많았다. 기문은 특별한 수신대상이 설정되지 않은 기문부터 김제 儒林들과의 交遊의 목적으로 지어진 기문이 다수였다. 다음은 이들을 바탕으로 석정 기문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Ⅲ. 石亭 記文의 특징

1. 自發的 記文 창작과 諸 經典의 借用

記文은 보통 당대 高名한 能文者에게 청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論 104편·說 66·記 35편·序 33편으로, 이들이 석정 산문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別集인 『燒餘錄』에는 13편의 遊記가 있는데, 이는 석정이 1895년 求禮에 있는 知友들을 만나기 위한 여행기이다. 이 13편은 단지 ‘○○記’라고 편의상의 제목을 달았을 뿐, 단순한 여행기에 가깝고, 記體의 범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간주하여 본고의 주된 논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논지 전개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 인용을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희병·성기옥, 『한국 산수기 연구-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pp.225-228.

청탁의 편중 현상은 작가의 문학적 위상과 비례하는 것임을 이미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석정 기문은 전체 22편을 기준으로 보면 자발과 청탁의 비율이 16 : 6으로 자발적인 성격의 기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청탁과 문학적 위상이 비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석정의 뛰어난 문학적 위상과는 반대로 청탁의 기문이 현저하게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발적인 기문이 많고 청탁한 기문이 적은 것은 석정의 문학적 위상과는 별개로 그가 처한 현실에서 기인한 요인이 크다고 하겠다.

석정은 28세에 청나라로 1년간 수행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평생을 전주와 김제에서 생을 보냈다. 그리고 당대 활발할 사회 활동을 한 해학 이기¹⁷⁾·매천시파를 형성한 황현¹⁸⁾과는 별개로, 석정은 지역의 儒林들과 交游를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기문을 창작해 주며 交遊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정은 이처럼 거의 廝生을 재야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청탁을 받고 창작한 기문은 적은 실정이다.¹⁹⁾ 기문을 청탁하는 것은 보통 公的인 기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私的인 기문에서는 오히려 교유의 양상에 따라 자발적인 기문이 더욱 활발한 창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석정이 자발적으로 창작한 기문 중에서 「靑鶴山記」, 「好書室後記」, 「萬卷堂記」, 「遊道成庵記」, 「夏宜軒記」, 「種竹記」 등은 수신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변 자연물이나 書室에 대한 후기, 書齋나 庵子에서의 일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경전의 인용도 없이 석정 자신의

17) 박중혁, 『海鶴 李沂 研究-韓末 激變期에 對應한 思想과 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0.

18)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경인문화사, 2007.

19) 석정의 제자인 裕齋 宋基冕(1882-1956)도 『裕齋集』, 『哭石亭李先生』에서 “脫畧名利外, 性不喜拘束, 處世良有術, 從容不混俗, 童孺亦歡迎, 坦夷無圭角”이라 하면서, 석정이 고향에서 세상 名利를 벗어나 생활한 모습을 5언고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의론을 차분하게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석정 기문에 나타난 서술대상을 소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2〉

소재	齋	室	堂	人名	亭	軒	自然	動植物	계
편수	5	5	3	3	2	2	1	1	22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문에서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누정기이다. 표를 보면 석정의 기문도 누정기가 전체 17편을 차지하고 있고, 人名과 自然物, 動植物에 대한 기문이 모두 5편을 이루고 있다. 기문은 문체의 특성상 주된 서술 대상이 그 범위가 방대할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물과 관계된 기문이다.²⁰⁾ 다시 말하면 전체의 작품들 중에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것은 樓亭記이고, 이러한 누정기의 창작 전통은 신라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²¹⁾

또한 석정의 기문은 載道文學의 특징인 諸 經典들을 두루 차용하여 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경전을 차용한 양상을 보면 「蘇亭記」와 「長枕軒記」는 『孟子』, 「智石記」와 「博約齋記」는 『論語』, 「鶴南齋記」는 『相鶴經』을

20) 박세진은 건축물의 종류를 생활공간을 서술대상으로 나누어 軒·堂·齋·院등을 소재로 한 기를 所居記라고 하였고, 遊觀의 공간을 서술대상으로 삼는 樓·臺·亭·廳·客舍·鄉校·閣·寺刹·精舍 등을 樓亭記라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누정기라는 명칭을 대표적으로 쓰고, 누정기에 소거기를 포함시켜서 논의하고자 한다. 박세진, 「교산의 <記>작품연구」, 『한문고전연구』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p.132.

21) 누정기의 장르적 특성과 연구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바탕으로 하여 건물의 이름을 풀이하였다. 또한 「止石記」는 『周易』, 「白坡書室記」는 『論語』를 비롯하여 『禮記』와 『周易』을 바탕으로 하였고, 「友竹堂記」는 『論語』, 『大學』, 『詩經』을借用하여 의론을 펼쳐 나갔다.²²⁾ 이들은 모두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山水 景物에 대한 묘사나 작가의 議論만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었고, 記事에 해당하는 건물의 重修나 沿革·過程을 서술한 일반적인 누정기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사와 의론이 복합적 양상을 띤 기문에서도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석정 자신의 의론만을 개진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정은 평생을 학문에 몰두하면서도 時文에 탐닉하지 않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는 것은 命인데, 命은 하늘에 있고 글 읽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는 나에게 있는 것만 다스린다”²³⁾고 하였다. 오로지 고향에서 학문과 후진양성에만 매진하면서 평생을 보내겠다는 석정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석정 기문은 청탁이 아닌 개인의 사적 경험이 주를 이루어 외부세계나 외물에 대한 서술이 기문의 대부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겠다. 공적인 이유로 창작된 기문이 형식과 틀에 구애를 받아서 개인의 문학성을 제대로 發顯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석정의 기문들은 그러한 구속과 제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2) 김정인은 조선 중기 기문에서 나타나는 諸 經典의 차용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산수유기류, 누정기류, 공칭기류, 서원기류 등으로 나누어 각 기문의 종류에 따른 경전 인용의 차이점을 밝혔다. 김정인, 『朝鮮中期 士林의 記文研究』, 국학자료원, 2003, pp.253-284.

23) 『石亭李定稷遺藁』, 《燒餘錄》, 「送李玉樵還玉山序」, “科宦命也, 命在天, 讀書在我, 我修其在我而已.”

2. 學問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석정은 시 못지않게 문장에서도 20여 개의 다양한 문체를 창작하면서 자신의 문학과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석정은 투철한 고문 정신을 바탕으로 駢儷文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²⁴⁾ 당대 흐트러진 文風을 되살리고자 六經을 중시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는 문장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육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문학이고, 말을 망령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하였다.²⁵⁾

먼저 석정이 논한 지금 사람들의 문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 사람들은 문장을 논하면서 항상 옛사람들만을 부러워하면서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문장에 대한 숨씨가 옛 사람들의 문장에 대한 숨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²⁶⁾

24) 『文藁』7권, 「盧大卿卜新宅文」, “然而子之建宅于茲而必發達, 余則有以見其兆也, 夫建宅而以駢儷之辭, 張其六拋者, 固嘗有之, 而其請古文而鎮之者, 寔自子始焉, 古文者, 文之朴實者也, 朴實者, 有方興未艾之意, 此其一兆也.”

25) 『文藁』7권, 「止石記」, “夫士之所當言, 非文也耶, 不妄言所言者, 文也.” 여기서 주장하는 석정의 문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古文이다. 석정은 나는 고문만을 전공하여 다른 길을 가지 않았고, 고문을 지을 때에는 항상 法에 의거하여 논하기를 좋아하였다. (중략) …또 나는 늙도록 고문을 전공하여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文藁』7권, 「文辨」, “余常喜以法論文, …(中略) …又余垂老, 攻古文不自貳.”)라고 하였고, 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공령문에 힘쓸 때 홀로 분연히 고문만을 즐겼으나, 스승도 없고 절차탁마할 친구도 없었기에 수많은 방황을 거듭하고 나서야 고문에 홀로 설 수 있었다(『文藁』4권, 「答鄭鶴山書」, “僕自小少喜爲古文, 當是時, 舉世尙功令, 而僕獨奮然直前, 爲人所不肯爲, 以故訓迪無師, 切劘無友, 乃遠就古人而學之.”)”라고 하였다. 이처럼 석정은 오로지 고문에 침잠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로도 많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석정의 고문론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가능한 생략하기로 한다.

26) 『文藁』4권, 「玉壺齋記」, “今人論文章, 常艷稱古人, 蓋不知今之工者, 與古之工者

석정은 지금 학문하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과 별다른 실력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오직 옛 것만 추종하고 본받으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옛사람들처럼 훌륭한 문장 솜씨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진 功力은 잘 모른 채 옛 것만 따르려는 세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도 얼마든지 옛 법에 맞는 문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글이 옛 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옛사람들만 부러워하고 모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 것은 오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에 살면서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히 오늘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그렇지만 옛 것은 소박하고 지금의 것은 편벽되어 있으며, 옛 것은 순수하고 지금의 것은 뒤섞여 있다. 나는 장차 순수하고 소박한데 거처하고자 하노니, 차라리 옛 것을 고집하여 검소하게 살지언정 지금의 사치스러움은 바라지 않겠다.²⁷⁾

석정은 매천과의 대화에서 오늘을 살면서 옛 것에만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오늘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글들은 편벽되고 雜駁하여 그 본질을 잃었다고 보았고, 이전의 글이 취하고 있는 순수함이나 소박함도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옛 것이라도 소박하고 순수함을 지니고 있기에 차라리 옛 것의 검소함을 취할지언정 지금의 사치스러움은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석정은 선비가 올바른 ‘古’에 이르는 길은 옛 것을 본받아 자신의 性情에 충실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속세의 이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天性에 의거하여 학문을 수양

無甚異也.”

27) 『文藁』7권, 『黃梅泉書室記』, “古者, 非今之稱也, 居于今, 而執乎古, 宜不合於今矣, 雖然, 古者樸, 而今也辟, 古者純, 而今也糅, 吾將居乎純樸, 寧且古而儉, 不願今之侈也.”

한다면 그것만이 바른 길이고, 儒者로서의 길인 것이다.

석정은 養麗齋 夏宜軒에서 편역 ‘夏宜’를 설명하며 사람이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자세도 제시하고 있다.

사계절의 순서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사시 모두 상생으로 공력을 삼으나 오직 여름만은 가을에 상극으로 공력을 삼는다. 이 집은 여름에 가을의 쓰임이 있으니 대개 하늘이 물건을 남에 반드시 가을에는 거둬들이는 공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또 반드시 학문을 게을리 하는 마음을 이겨야 하고 그런 뒤야 이내 성공에 다다른 것이다. 이 집에 거처하는 사람은 좌우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더위에 고생하는 것이 없다. 학문을 점점 고구하고 경진하여 공부에 점점 독실하게 나아가지 않고 거두어들이 것만 생각한다면 이 편역의 뜻에 거스름이 큰 것이다. 무릇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못 절만 화려하게 꾸민 것에 가까우나 장차 학문에 나아감에 보탬이 있겠기에 이와 같이 기술하는 것이다.²⁸⁾

계절은 四時를 순환하면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계절 간 五行의 상극은 겨울의 상극이 여름이고, 여름의 상극은 가을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도 누구나 학문을 해야 하지만, 한편 가장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학문이기도 하다. 석정은 먼저 ‘夏’의 뜻을 설명하면서 여름에 공력을 다하면 가을에 반드시 거둬들이는 것이 있을 것이니, 사람도 이처럼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석정도 늙을 때까지 문장과

28) 『文藁』5권, 『夏宜軒記』, “且四時之序, 春而夏, 秋而冬, 皆以相生爲功, 而惟夏之於秋, 以相克爲功, 茲軒也, 夏而有秋之用焉, 蓋天之生物, 必秋而有收斂之功, 以故相克而爲之用也, 人之於學亦然, 亦必克去其倦學之心, 然後乃底于成矣, 處茲軒者, 左右清風, 無炎熱之苦, 而沁沁泄泄不篤下其工, 思所以收斂之, 則其有負於所扁之義, 大矣, 夫余之此說, 頗近于巧, 而將有裨於進學, 故記之如此.”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에,²⁹⁾ 학문을 하면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는 마음을 이겨내야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학문에 열심히 힘쓰고 독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로지 결과에만 힘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도 꾸준하게 학문해야 하는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석정은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하며 학문에 몰두하지만, 늙어서 원대한 과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였고,³⁰⁾ 학문을 꾸준히 해야 함을 학에 빗대어 주장하고 있다.

『상학경』에서 이르기를, “학은 금의 기운을 따르고, 화의 정기를 타고서 스스로를 기른다. 금의 숫자는 9이고, 화의 숫자는 7이다. 그러므로 7년이 지나면 조금 변했다가, 16년이 지나면 크게 변하고, 160년이 지나면 변화가 그친다. 1600년이 지나면 형체가 정하여진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이 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에 아무런 법칙이 없음을 매우 심하게 비웃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생각해 보니 이 새는 처음 새끼를 낳을 때부터 깃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번 변하고, 그 깃털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다시 변한다. 은하수까지 날아 올라가 점차 변하고, 춤추는 것이 절도에 맞고 울음소리가 법도에 적중하게 되어 끝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봉황새와 함께 날갯짓을 한다. 이와 같이 매번 변하면서 더욱더 나아가니 잘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배워서 점차적으로 진전이 있게 되면 능히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³¹⁾

29) 『文藁』4권, 『好書室後記』, “獨好爲文辭, 至老白首而不知倦.”

30) 『文藁』5권, 『遊道成庵記』, “吾儕士人, 自妙齡讀書, 至老白首, 未有遠大之業, 垂諸悠久, 而乃齷齪尋行數墨, 不則放浪山水, 以爲勝趣其爲戲也, 久矣.”

31) 『文藁』4권, 『鶴南齋記』, “相鶴經云, 鶴因金氣, 乘火精, 以自養, 金數九, 火數七, 故七年大變, 十六年大變, 百六十年變止, 千六百年形定, 余始讀之, 甚笑其言之不經, 旣而思之, 是鳥也自始落子, 毛以後一變, 而羽翮具再變, 而飛薄雲漢漸變, 而舞應節鳴中律, 終於聖人在位, 則興鳳凰同翔, 其每變而益進, 可謂善變者矣, 人之于

鶴南이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곳은高興 東鶴山 남쪽에 있는白巖 金九鼎의 묘역 재실이 있는 곳이다.³²⁾ 석정은 학문의 발전을 학이 성장하여 봉황의 경지에 이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학은 160년이 지나면 암수가 서로 만나 잉태하며, 1600년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고 봉황과 더불어 羽族의 宗匠이 된다.³³⁾ 그래서 학은 장수하는 동물로 仙鳥, 또는 胎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석정은 이처럼 학이 태어나 깃털이 자라고 날아올라 춤추는 것이 절도에 맞고 울음소리가 법도에 맞는 것을 학문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학이 봉황으로 성장해 가듯 학문도 나날이 발전하면서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학이 최고의 경지인 봉황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도 꾸준히 학문을 연마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석정은 옛 법을 잘 본받아 문장에 힘쓰고, 말을 망령되지 않게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문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당연히 학문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나날이 학문을 연마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3. 自修와 仁義의 중요성 강조

일반적으로 기문에서 보이는 대상에 대한 찬양·칭송과는 다르게 석정

學, 得無類是乎, 學以漸進, 其能變化氣質矣.”

32) 송기면 저·박완식 역, 『裕齋集』4권, 『鶴南齋記』에 보면, 백암 김구정은 莊陵朝(단종)의 純臣인 晚池堂 遼의 종손이라 하였다. 그리고 유재도 ‘鶴南齋’의 기문을 청탁받았기 때문에 同名의 기문이 『裕齋集』에도 실려 있다.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소, 『세계의 민간신앙』, 한국외대출판부, 2006, pp.111-115.

은 儒者로서의 修養과 仁義를 강조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칭송은 거의 대부분의 수신자가 석정보다 연하인 경우가 많아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칭찬이나 勸告가 중심을 이룬다. 반면 개인의 修養과 仁義를 강조하는 것은 儒者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大學』에서도 切磋琢磨는 곧 학문과 자기 스스로의 행실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고, 自修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외물의 유혹을 이겨 다스리는 공부라고 하였다.³⁴⁾ 끊임없이 학문을 함으로써 自修하고, 자수함으로써 仁義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참된 공부인 것이다. 유자로서 외부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학문에 매진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석정 자신에게도 영원한 화두였다.

석정의 친구 李聖心은 집에 ‘逸堂’이라는 편액을 달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쓰임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근심을 석정에게 말하며, 경계의 말을 부탁하였다.³⁵⁾ 이성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에 합당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세상에 존재한다면 곧 세상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 儒者로서 治國平天下도 못하고 난을 이겨낼 용기도 없기에 존재의 의미가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사람됨[爲人]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自修]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儒者로서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비록 이성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원한 處士로서의 삶,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석정 자신의

34) 『大學』, “如切如磋, 道學也, 如琢如磨, 自修也.(註-自修者, 省察克治之功.)”

35) 『文藁』6권, 『逸堂記』, “吾才疎而識寡, 文不足以輔治平, 武不足以勸禍亂, 處乎世, 利澤未及乎人, 其湮滅而寥寥乎來世, 可以悲矣. 夫人之所貴於物, 爲不失人之爲人也, 而吾不能然, 吾是以扁吾所居曰逸堂, 逸字失也, 以而箴吾失, 子幸爲我一言, 以明吾志.”

근원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대는 쓸모가 없을 것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쓰이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가? 세상에 쓰이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수양한 것이 있으니, 그 수양한 것이 그대의 몸에 충분치 않으면, 이것이 소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대를 쓰면 그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수양한 것이 충분한데도 세상에서 그대를 쓰지 않으면 이것이 이른바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세의 사람들 쓰는 관리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 그대가 어찌 꺼림칙하게 생각하겠는가? 모양이 갖추어지면 그림자가 생기고 소리가 크면 멀리까지 울리니, 그대는 오직 스스로 힘써 닦을 것이지, 어찌 전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가?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 治國平天下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환란을 평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다만 그대의 잘못처럼 여겨 그대 혼자서 걱정하겠는가? 여기에서 그대의 뜻이 충분히 드러났다.³⁶⁾

세상에 쓸모가 없고, 쓰임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보다는 스스로 수양하고 자신을 존재있는 가치로 만들어 나간다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마련이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 쓰이고 안 쓰이고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석정은 스스로의 수양이 충분한데도 세상이 그대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부끄럽고 꺼림칙하게 여길 문제라고 하였다. 석정이 말한 ‘모양이 갖추어진다[形具]’는 것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림자가 생긴다[影生]’는 것은 ‘세상에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수양이 전제가 된 다음에야 세상에 쓰임

36) 위 글, “子將患夫無所用乎, 抑患夫不見用乎. 夫見用於世者, 必有自修, 所修者, 未充乎子之身, 是所謂無所用也, 世則用子, 子得無懼乎, 自修充矣, 而世不子用, 是所謂不見用也, 則當世有司者之恥也, 子何慊焉. 形具則影生, 聲大則響遠, 惟自修之是力, 何患乎無所傳也, 雖然視今之世, 不能輔治平, 勸禍亂矣, 直如子之失而子獨憂焉, 於此可以見子之志矣.”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정은 끊임없는 自修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정은 이성심 형제에게 扁額에 기문을 써 주면서 人欲을 누르고 天理를 통해서 仁義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天理와 人欲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因할 수 있는 것을 궁구하여 인욕에 나아가 천리를 따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의의 행실을 닦는 자는 반드시 먼저 形氣의 욕망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형기의 욕심이 그 올바른 욕구를 얻으면 인의의 길이 막히는 바가 없을 것이다.³⁷⁾

人欲은 『孟子』에서 말한 “遏人慾，存天理”처럼,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朱子의 天理人慾說을 시작으로 인욕은 사람이 버려야 할 본능적 욕망으로 부정되어 왔다.³⁸⁾ 반면 天理란 성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천지 자연의 도리, 하늘의 바른 도리를 말한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위로 통달하기 때문에 천리를 따르므로 날마다 高明함에 나아가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하여 人慾을 따르기 때문에 날마

37) 『文藁』7권, 『長枕軒記并書』, “余嘗究天理人欲之不相容而可相因者, 得其就人欲而循天理之術, 竊以爲修仁義之行者, 必先導形氣之欲, 形氣之欲, 得其所欲, 而仁義之途, 無所塞矣.”

38) 윤증 저·조순희 역, 『明齋遺稿』4권, 민족문화추진회, 2006에 보면, 『又贈道以』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孟子』의 大義가 인욕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대 지금 맹자를 공부하고 있으니 / 맹자 책의 대의를 능히 알고 있을 터 / 선을 추구하는 것과 이익 좇는 것에서 / 순 임금과 도척이 나뉘는 법이라네 / 이익은 다름 아닌 인욕을 가리키고 / 선이란 건 천리를 지칭하는 말이라네 / 천리는 인간의 본연적인 성품이니 / 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고 / 인욕이란 본래부터 위험천만한 일이나 / 명예를 추구함도 이익 좇는 행위라네 / 선과 이익 사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 맹자 책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되리라(君讀孟子書, 能知第一義, 爲善與爲利, 舜跖分於此, 利者是人慾, 善者是天理, 天理是本性, 爲善卽爲己, 人慾是坑塹, 爲名亦爲利, 辨破善利間, 方會讀孟子).”

다 卑下함에 이른다”³⁹⁾고 하였고, 맹자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천리를 따르는 것이다”⁴⁰⁾라고 하였다. 또 茶山 정약용은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인욕은 저절로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할 것이라고도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인욕은 유자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인간의 본원적 욕망인 것이다.

석정은 인욕을 잘 극복해 나아가서 천리를 따르는 방법으로 仁義를 강조하고 있다.⁴²⁾ 聖人이나 賢人은 인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외물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⁴³⁾ 인의를 수행한 사람은 먼저 形氣⁴⁴⁾의 욕망을 잘 인도하고, 형기가 잘 길러진다면 인의는 막히지 않게 된다. 석정은 순임금의 예를 들어 仁義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순임금이 관리에게 명하는데 곡식을 과중하는 것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보다 앞섰던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백성이 막히거나 굶주림이 없고서야 五品을

39) 『論語』, 『憲問』14장,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君子, 循天理, 故日進乎高明, 小人, 循人慾, 故日究乎汚下).”

40) 『孟子』, 『序說』, “所謂率性, 循天理是也.”

41) 정약용, 『牧民心書』, 『守法』, “確然持守, 不搖不奪, 便是人慾退廳, 天理之流行.”

42) 석정은 문장에서 人道를 세우는 것은 仁과 義이고, 仁義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빛으로 밖에 드러나는 것이 문장이라고 하였다. 『文藁』7권, 『爲文章必本於仁義論』, “蓋文章者, 道之光輝也, 道者, 文章之實也, 子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仁義充於中, 而光輝著於外, 是之謂文章.”

43) 『文藁』4권, 『申南沙書室記』, “出乎天性者, 居之確而不遷, 外物惡得而奪之, 聖賢之於仁義, 志士之於氣節, 狷介者之於廉潔, 雖所得有通編, 而當其動中而形外, 油然而宣, 充然無歉, 饑飽之所不撓, 榮悴之所不移.”

44) 形氣는 신체 외곽의 氣로써 外物이 먼저 形氣에 닿으면 형기가 그것에 感發하여 받아들여 中(心)을 움직이게 하고, 中(心)이 다시 움직여 형기를 통해 나온다(연세대학교 편집부,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104). 形은 구체적인 物象, 氣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을 말하는데, 석정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표출된 것을 형기로 보았다.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공자가 정치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에 양식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백성이 믿게 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서야 믿음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맹자가 왕도정치를 진술할 때 의식이 庠序에 앞선다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백성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것이 없고서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현의 마음은 의식이 오성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다. 먼저 형기를 잘 길러주고 이것을 통하여 성명의 바름을 인도하면 인욕이 천리를 헤칠 수가 없어 인의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⁴⁵⁾

『書經』, 『舜典』에 舜임금이 먼저 농사를 담당하는 장관인 棄에게 백성에게 교육보다 곡식의 파종이 먼저라 하였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인 契에게는 백성이 五品⁴⁶⁾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⁴⁷⁾ 그리고 『論語』, 『顏淵』편의 말을 빌려 백성의 양식을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이 백성들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⁸⁾ 『孟子』의 말을 빌어서는 백성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잘 받아 孝悌의 의리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백성들의 기본적 욕망에 해당하는 형기가 막히거나 굶주리지 않아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히 하는 五倫이 바로설 수

45) 『文藁』7권, 『長枕軒記并書』, “是以舜之命官也, 播穀先於敷教, 蓋曰, 民無阻飢而後, 五品可得以遜矣, 孔子之答問政也, 足食先於民信, 蓋曰, 非不得已, 則民無死而後, 信可得以立矣, 孟子之陳王政也, 衣食先於庠序, 蓋亦曰, 民無飢寒而後, 孝弟之義, 可得以申之矣, 聖賢之心, 非以衣食爲重於五性也, 爲其先養形氣, 因以引乎性命之正, 則人欲不能害天理, 而仁義可以行矣.”

46) 유교에서 五典·五輪·五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한다.

47) 『書經』, 『舜典』, “帝曰棄, 黎民阻飢, 汝后稷, 播時百穀.”

48) 『論語』,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49) 『孟子』, 『梁惠王上』,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있다는 것이다.

석정은 인의에 통달하지 못한 자들에게 “仁義는 공적인 것이고, 形欲은 사적인 것이다. 어찌 반드시 衣食같은 사적인 계산을 가지고 천리와 같은 공적인 것과 더불어 논할 수 있단 말인가?”⁵⁰⁾라고 하였다. 形氣를 제대로 인도하여 길러주지 못하면 인욕의 사사로움이 형기의 가운데에서 점점 자라나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정은 먼저 형기를 잘 길러주고, 이것을 통하여 性命의 바름으로 인도하면 인욕이 天理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의는 자연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人倫의 紀綱을 바로세울 수 있다. 그래서 석정은 스스로 더욱 勸勉하여 항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本然之性을 최대한 늘리고, 형기의 구속을 막는 것이 仁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석정 이정직의 記文을 개관해 보고, 기문에 나타난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記文은 당대 能文者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50) 『文藁』7권, 『長枕軒記并書』, “仁義公也, 形欲私也, 何必以衣食之私計, 與論於天理公正之地乎云爾.”

51) 위 글, “聖賢之心, 非以衣食爲重於五性也, 爲其先養形氣, 因以引乎性命之正, 則人欲不能害天理, 而仁義可以行矣.”

석정의 기문은 타인에게 청탁을 받은 기문보다 자발적인 창작으로 이루어진 기문이 많이 나타났다. 석정은 거의 卣生을 고향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교유하였기 때문에, 公的인 기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적인 기문이 형식과 틀에 얽매어 사실보다 과한 것이 있는 반면에, 석정의 기문에서는 그러한 구속과 사실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누정기가 많았고, 이들은 모두 四書五經의 경전들을 차용하여 석정 자신의 의론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석정은 당대에 흐트러진 文風을 되살리고자 六經을 중시하였고, 儒者는 말을 망령되이 하지 말며, 마땅히 문학에만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속세의 이로움에 치우치거나, 오로지 결과에만 힘쓰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天性에 의거하여 꾸준히 시문에 힘써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셋째, 儒者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강조하며, 개인의 수양[自修]과 仁義를 강조하였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외물의 유혹을 다스리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인 人慾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자기 수양을 통해 인욕을 잘 다스리고 天理를 통해서 인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임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石亭 記文의 연구가 석정 산문의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석정 산문의 밑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중요한 시도라 여겼고, 그의 총체적인 문학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論語』

『大學』

『孟子』

『書經』

서사증, 『文體明辯』.

손 매, 『四六叢話』.

이정직, 『石亭集』.

_____, 『石亭李定稷遺藁』, 김제문화원, 2001.

이건방, 『蘭谷存稿』.

정약용, 『牧民心書』.

김제 시민의 신문 2004년 4월 19일자.

2. 논문 및 단행본

구사회, 『근대 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_____, 『석정 이정직의 시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한국언어문학』5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p.44.

김정인, 『朝鮮中期 士林의 記文研究』, 국학자료원, 2003, pp.253-284.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경인문화사, 2007.

박세진, 『교산의 <記>작품연구』, 『한문고전연구』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박종혁, 『海鶴 李沂 研究-韓末 激變期에 對應한 思想과 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박중홍, 『박중홍 전집』V, 형설출판사, 1980, pp.283-285.

박희병·성기욱, 『한국 산수기 연구-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pp.225-228.

송기면 저·박완식 역, 『裕齋集』4권, 이회, 2000, pp.44-46.

심경호, 『석정 이정직과 시경』, 『국제어문』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p.38.

안세현, 『조선중기 누정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연세대학교편집부,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p.104.

한국외대의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민간신앙』, 한국외대출판부, 2006, pp.111-115.

Abstract

A study on Seokjung Lee Jeongjik's Ki writings

Kim, Ha-Yun

This manuscript give an overview of Seokjung Lee Jeongjik's written documents who is the writer at the late period of Chosun, and consider that features. Seokjung is called three respectable persons in Honam province like Maechun Hwanghyun and Haehak Lee gi, and has talents at the poetry, the calligraphy, and the painting. All his cento works before fifty four years of his age disappeared because of Donghak peasantry movement, however he had concentrated on studies, and left 20 styles of writing and over 1500 behind works. Among his cento works, written documents are good genres to see his literary talent with characters that he requested famous writers. This manuscript consider Seokjung's 22 written documents as subjects of study, these have strong spontaneity not like others' written documents, and take different scriptures. Seokjung did not work at the chosun government so that his written documents could have strong spontaneity with social intercourse, it could be understood to describe his ideas with different scriptures. Moreover, Seokjung tried to suggest the right way of studies as confusion scholars through his written documents. He emphasized that scholars keep studying without laziness because studies are suitable things to do. Also, he mentioned how to get over our greed with the constant attitude of self-discipline. He accentuated people take greed away and proceed humanity through natural law as our greed is the thing that scholars keep strict watch.

Key Word : Seokjung Lee jeongjik, Ki writings, spontaneity, take scriptures, natural law, and humanity

김하윤

소속 : 배재대학교 기초교양교육부 조교수

주소 :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501호

전화번호 : 042-520-5773 / 010-3466-4336

전자우편 : kiwi4474@pcu.ac.kr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